

## 6/20(월) 시편 73-77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멸시합니다(73:11, 74:10).

그럼에도 재력가, 권력자인 그들은 끝까지 잘삽니다(73:4-5).

갑질과 폭력을 일삼지만 승승장구하며 높은 급여를 받고(73:5-9),

그들의 재산은 나날이 증식됩니다(73:12).

하나님 성전, 영적 권위들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74:3-8).

무기와 전쟁 앞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76:3,6).

주의 인자가 끝나고 약속들이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77:6-8).

시인은 성실히, 말씀대로 살아온 삶이 허탈합니다(73:13-14).

언제까지 주의 이름이 비방과 능욕을 받아야 하는가, 탄식합니다(74:10).

오만한 자들과 고관, 세상 왕들로 인해 절규합니다(75:4,12),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습니다(73:17, 75:1-2,7, 76:12, 77:3,5-6,11-12).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교훈합니다(73:22,23,25,27-28).

주의 이름이 가깝고,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75:2).

<오만한 자들\*>의 기가 꺾이게 될 것입니다(75:4, 76:12).

\* ھ) 훌레림, 국제적/사회적 측면의 악인들

가장 비참한 고통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인 것입니다(73:27-28).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 때 함께 하소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73편을 기반으로 작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소득과 지위에 대한 비교, 선악의 판단에 따른 분노, 억울함, 자괴감 등의 감정들)

시편3권 (73-89편)

편	유형	편	유형
73	지혜시편	82	제의 기도문
74	공동체 탄식시	83	공동체 탄식시
75	공동체 감사시	84	시온의 노래
76	시온의 노래	85	개인 탄식시
77	개인 탄식시	86	공동체 탄식시
78	구속사 시편(지혜시편)	87	시온의 노래
79	공동체 탄식시	88	개인 탄식시
80	공동체 탄식시	89	개인 탄식시(왕조)
81	계약갱신 제의문		